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 너를 잡고 기필코 16강 간다

〈나이지리아〉

## 허정무호 “파부침주의 비장한 각오로 뛰겠다”

〈破釜沈舟=빚술 깨고 돌아갈 배 기라앉힌다〉

## 홍수환 ‘4전5기 신화’ 쓴 약속의 땅 더반 임성

“엄마, 나 월드컵 16강 먹었어.” “그래 대한민국 만세!” 상상만으로도 유쾌하다.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 태극전사들이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각) 아프리카 강호 나이지리아와 일전을 끝내고 나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나눌지 모를 대화다.

한국 대표팀이 23일 오전 3시30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더반 스타디움에서 치를 나이지리아와 2010 남아공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위해 마침내

결전의 땅인 더반으로 들어가 운명의 한 판 승부를 준비한다.

원정 월드컵 첫 16강이라는 한국축구가 새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더반은 아프리카 최대의 무역항이자 고층빌딩이 즐비한 상업 도시인데, 한국과는 기분 좋은 인연을 갖고 있다.

복싱 스타 홍수환씨가 ‘4전5기 신화’를 쓰기 전인 1974년 7월4일 세계복싱협회(WBA) 밴텀급 타이틀매치에서 아놀드 테일러를 꺾고 세계 챔피언이 된 곳이 바

로 더반이다. 당시 경기 후 홍 씨가 어머니와 국제 전화에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고 하자 홍 씨의 어머니가 “대한 국민 만세!”라고 말해 더욱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현재 1승1패로 B조 2위에 오른 한국 대표팀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무조건 나이지리아를 꺾고 16강 진출을 이뤄낸다는 각오뿐이다. 대표팀의 행정팀장과 조리장은 이미 19일 더반으로 들어가 선수단을 맞을 체비를 했다. 훈련 장비 등 20상자

분량의 짐도 먼저 배스캐프인 루스텐버그를 떠났다.

선수들은 20일 루스텐버그 인근 필라네스버그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제공한 전세기편으로 더반으로 이동해 21일 오전 팀 훈련장으로 배정받은 프린세스 마고고 스타디움에서 첫 훈련을 한다.

허정무 감독은 ‘밥 지을 술을 깨고 돌아갈 배를 부수 가라앉힌다’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비장한 각오로 나이지리아와 일전에 나서겠다는 출사표를 밝혔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배수진을 치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리스·아르헨티나와 앞선 두 경기는 현지시각으로 낮 1시30분에 치렀지만, 나이지리아와 경기는 오후 8시30분에 kick-off되기 때문에 훈련도 비슷한 시간대에 맞았다. /연합뉴스



## 나이지리아전 승리 비책은?

# 허술한 측면·뒷공간 뚫어라

### 허정무호 최종전 준비

“마지막 기회를 살리자!”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통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본선 B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나이지리아의 허점 찾기에 사활을 걸고 나선다.

지난 19일 나이지리아가 최종캠프를 차린 남아프리카공화국 리차즈베이의 음블라루제 스포츠 콤플렉스는 적막이 흘렀다. 하루 동안 완벽한 휴식을 취한 나이지리아 대표팀은 한국과 오는 23일 새벽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마지막 ‘꿀맛 휴식’과 더불어 고갈된 에너지 충전에 나서면서 훈련장을 비웠다.

이 때문에 조별리그 최종전을 준비하는 태극전사 코칭스태프는 왼쪽 풀백 요원이 모두 다친 나이지리아 대표팀의 약점을 분석하는데 애를 썼다.

조별리그 1·2차전에서 모두 패한 나이지리아는 한국과 최종전을 통해 16강 진출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주어진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나이지리아는 왼쪽 측면수비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주전 왼쪽 풀백인 타에 타이워(마르세유)

는 후반 10분 허벅지 안쪽 근육을 다쳐 경기를 포기했다. 더구나 왼쪽 풀백 백업 멤버인 우와 에치에질레(스타드 렌)도 그라운드에서 나선지 22분 만에 부상으로 쓰러졌다.

결국 라르스 라에르베크 나이지리아 대표팀 감독은 어쩔 수 없이 중앙 수비 요원인 라비우 아폴라비(잘츠부르크)를 왼쪽 측면 수비수로 내세우며 경기를 마쳤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이지리아는 그리스와 2차전에서 전반 중반 오른쪽 날개로 나선 사니 카이타가 보

복싱 발길질로 퇴장 명령을 받으면서 전력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는 원정 첫 16강 진출의 목표 달성을 향해 나이지리아의 수비 허점 공략과 더불어 아르헨티나와 2차전에서 당한 1-4 대패의 아픔을 씻기 위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마지막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8년 만에 찾아온 16강 진출의 기회를 태극전사들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축구팬들의 걱정과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 나이지리아 역전패 빌미 카이타 살해 위협

나이지리아 축구대표팀 주전 미드필더 사니 카이타(알라니아 블라디갑카스)가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미국 스포츠전문 채널 ESPN이 20일 보도했다.

카이타는 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롬폰테인에서 열린 남아공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 그리스와 경기에서 전반 33분 퇴장당해 1-2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했다.

1-0으로 앞서며 유리한 경기 흐름을 이어가던 나이지리아는 카이타의 퇴장

이후 수적 열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1-2로 역전패했다.

카이타는 공이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상대 선수를 밀고 발길질하는 동작을 취해 퇴장을 자초했다.

경기가 끝난 뒤 “살해 위협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힌 카이타는 “그러나 나는 이슬람 교도으로서 오직 신만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태극전사들이 19일(한국시각) 루스텐버그 올림픽아 파크 스타디움에서 축구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가운데 기성용이 서버를 넣고 있다. 같은 팀 이승렬과 박주영이 시야를 가렸다가 옆드리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경고·부상 많은 아르헨 ‘한국엔 악재’

### 그리스전 사무엘 등 주전들 출전 불투명

‘아르헨티나의 악재는 한국의 악재!’ 2010 남아공 월드컵 우승후보인 아르헨티나(2승)가 그리스(1승1패)와 B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경고 누락과 부상 선수가 생겨면서 전력 누수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나이지리아(2패)를 상대해야 하는 한국(1승1패)은 아르헨티나가 그리스를 꺾어줘야 16강 진출이 유리해지는 만큼 좋지 않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AP통신은 19일 “아르헨티나의 경험 많은

수비수 왈테르 사무엘(인터밀란)이 허벅지를 다쳐 그리스와 최종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며 “아르헨티나로선 경험 많고 수비가 뛰어난 사무엘이 없이 경기를 치를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미디어 담당관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무엘이 왼쪽 허벅지에 경련이 왔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그리스전에 나설 수 있을지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걱정은 사무엘의 부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동안 받은 경고 역

시 마라도나의 전술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선 오른쪽 풀백을 맡아온 호나스 구티에레스(뉴캐슬)는 나이지리아전과 한국전을 치르며 각각 경고를 1개씩 받아 그리스전에 나설 수 없다.

게다가 오른쪽 풀백인 가브리엘 에인세(마르세유)와 수비형 미드필더 하비에르 마스체라노(리버풀)도 한국과 경기에서 옐로카드를 받은 상태다.

만약 부상과 경고 선수가 많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그리스가 승점을 올린다면 분명 나이지리아와 최종전을 앞둔 한국으로선 악재임에 틀림없다. /연합뉴스

## 결전을 위해... 족구로 기분전환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의 기회를 잡은 한국 축구대표팀이 결전의 땅 더반으로 떠나기 전 족구로 기분 전환을 하며 나이지리아와 운명의 일전을 준비했다.

오는 23일 오전 3시30분(이하 한국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더반 스타디움에서 나이지리아와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을 치르는 한국 대표팀은 지

난 19일 오후 배스캐프인 루스텐버그의 올림픽아 파크 경기장에서 자체 축구 대회를 가졌다.

선수들은 앞서 그리스 및 아르헨티나와 대결을 준비할 때 이동일 하루 전날은 온종일 숙소에서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했지만, 이날 허정무 감독은 선수들을 모두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연합뉴스

이들 전 아르헨티나와 2차전에서 1-4로 크게 져 가라앉은 분위기를 서둘러 추스르고, 16강 진출 여부를 가를 나이지리아와 한 판 승부를 다시 한마음으로 준비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대표팀은 남아공으로 건너오기 전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일에도 축구 경기로 피로를 풀었다. 이날 선수 23명은 5~6명으로 네 팀을 만들어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렸다. 선수들은 참가비로 1인당 23만원을 냈다. 대표팀이 받은 격려금 중에서 2400달러까지 삼당으로 내걸려 승부욕을 더 자극했다. /연합뉴스